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항만 물동량 '침체' 직면
- Bloomberg: '10월 미 소비자 상품 인플레이션 둔화'
- Bloomberg: 뉴욕 연준 '미국인 노동시장 인식 악화, 인플레이션 예상은 낮아'
- Bloomberg: SF 연준 총재 "너무 오랜 금리 동결 피해야"

[미국 금융]

- Reuters: 연준 이사 Miran "스테이블 코인 채택시 금리 하락 압력"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연방 섣다운 종결 막바지...민주당 양보
- WSJ: 트럼프, 관세 수입을 미국인에 최소 2천 불씩 지급 제안

[의료보험]

- TheEconomist: 미 의료보험 비용 크게 인상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미 항공사들 1천4백 편 취소... 더 늘어날 듯
- CNNBusiness: Wendy's, 수백개 매장 문을 닫는다

[미국 경제]

Bloomberg: US Ports Facing 'Goods Recession' Amid Holiday Lull, Tariff W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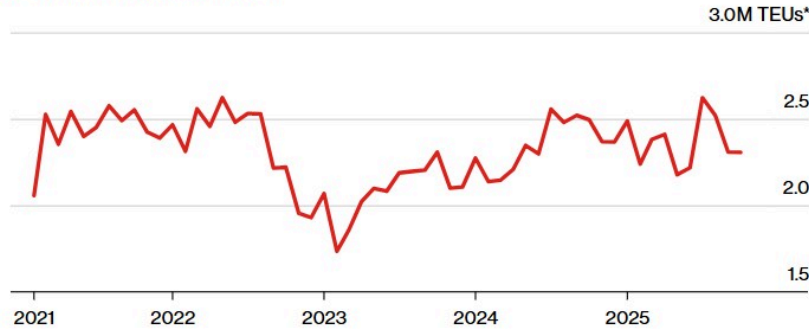
미 항만 물동량 '침체' 직면

- 미 항만 물동량이 올해 말과 내년으로 가면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불확실성과 소비 지출이 어둡기 때문이다.
- 관련 기관 Descartes Systems Group의 선적 동향에 따르면 미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9월과 비교해서 0.1% 하락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7.5% 줄었다.
- 전미소매연합(NRF)에 따르면 11월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4%, 12월은 작년 동월 대비 17.9%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Tariffs Cause Sharp Swings in US Container Imports

Forecasts for early 2026 show weakness extending past a seasonal lull

Millions of 20-foot containers



Source: Descartes' November Global Shipping Report
Note: *TEU = 20-foot equivalent container units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October Consumer Goods Inflation Slows in OpenBrand CPI Data

‘10월 미 소비자 상품 인플레이 둔화’

- 관련 데이터 조사 회사인 OpenBrand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 내구재와 개인 상품 인플레이가 10월의 경우는 3개월만에 처음으로 크기 하락했다. 이는 소매업체들의 할인율이 약간 상승한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 관련 대형 상품과 개인 관리 용품은 10월에 0.22% 상승해 9월의 상승폭 0.48%보다 줄었다.
- 이 조사 회사 OpenBrand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매 웹사이트 등의 판매 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품목에서 물가 상승폭이 둔화했다. 예외는 통신 관련 전자기기들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onsumers See Worse Job Market, Muted Inflation in Fed Survey

뉴욕 연준 ‘미국인 노동시장 인식 악화, 인플레이 예상은 낮아’

- 뉴욕 연준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월에 미국인들이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은 악화했으며 그 대신에 인플레이 예상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인들의 실업률 기대감도 높아졌다. 소비자들이 지금부터 향후 1년간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43%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미국인들의 소비자 가격 예상치는 9월에 3.4%에서 10월에 3.2%로 답변했다.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의 인플레이 기대치는 3%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Daly Says Need to Avoid Mistake of Holding Rates Too Long

SF 연준 총재 “너무 오랜 금리 동결 피해야”

-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Mary Daly는 미국 경제가 수요 측면에서 아마 둔화를 겪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관세 관련 인플레이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 그는 현재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임금 인상도 약한 상태인 상황에서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하는 조치에 대해 경고했다.
- 그는 197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했다. 그는 고물가라는 1970년대의 상황을 피하려는 나머지 1990년대의 가능성(일자리와 성장 가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Reuters: Fed's Miran: Stablecoin adoption could put downward pressure on interest rates

연준 이사 Miran “스테이블 코인 채택시 금리 하락 압력”

- 트럼프가 최근 지명/지지했던 연준 이사 Stephen Miran은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에는 채택되지 않았을 때보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BCVC Summit 2025 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를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해도 경제에 대한 대출 가능한 자금의 순 공급을 증가시켜 미 경제의 중립 금리를 낮추게 된다”고 말했다.
- 중립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단기 금리 수준을 말한다. 이른바 R-star로 불린다.
- 그는 “중립 금리가 낮아진다면 건전한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책 금리도 낮아져야 한다”라며 연준이 중립 금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대비 달러가 안정되도록 지정된 암호화폐인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경우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점차 금융시스템에 연결되고 있다. 그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에 사람들이 가장 신뢰받는 통화로서 자산 보유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러의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Reuters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Democrats Concede Shutdown Fight Without Health Care Win in Hand

연방 셧다운 종결 막바지...민주당 양보

- 민주당은 의료보험료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관련 소득 공제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정부 섀다운이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 트럼프와 협상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지 못했다.
- 결국 민주당 의원 8명은 자기 당과 달리 섀다운 종결을 위한 법안에 공화당 입장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이 주창해왔던 이른바 오바마 보험의 세금 공제 지원 연장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 민주당은 앞으로 중간선거에서 의료보험 이슈를 부각해 공화당이 의료 보험 세금 공제를 방해해 의료보험료가 급등했다고 공화당에 책임을 물으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Trump Suggests \$2,000 Payouts to Americans as He Defends Tariffs

트럼프, 관세 수입을 미국인에 최소 2천불씩 지급 제안

- 연방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의 관세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 가운데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대부분의 미국인 개인에게 적어도 2천달러씩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제 일요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같이 제안했다. 물론 수혜자에는 고소득층은 빠진다.
-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1970년대 대통령 비상 권한을 근거로 많은 관세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 이 같은 이른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와 부과한 관세는 올해 전체 관세의 3분의 2 가량이나 된다.

WSJ 기사

[의료보험]

TheEconomist: America's health-care costs are shooting up 미 의료보험 비용 크게 인상된다

- 올해 미 단체 의료보험 비용은 8.5% 오를 예정이다.
- 의료보험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새로운 약물 개발, 고령화 현상, 정신 치료의 급증으로 보인다.
- 작년 한 해만 해도 의료품 순지출이 11% 증가했다. 이는 특히 비용이 높은 치료 때문이다.
-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치료를 더 받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를 이용하게 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을 사용하고 있다.
- 특히 정신 치료 관련해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입원 환자 의료 청구 금액은 80% 상승했지만 외래 환자 청구비는 40% 상승했다. 이 같은 비용 상승은 불안, 우울증, 발달 장애 때문이라는 것.

The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WSJ: US Airlines Cancel 1,400 Flights With Total Expected to Grow**
미 항공사들 1천4백 편 취소... 더 늘어날 듯

- 정부 섯다운으로 정부가 4일째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눈이 내려 취소편이 더 늘어나고 있다.
- 관련 회사인 Cirium의 운항 상황 분석에 따르면 미국 공항들의 항공 취소는 총 1천4백32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카고 오헤어 공항과 뉴욕 라과디아 공항, 뉴욕 리버티 인터내셔널 공항의 경우 더욱 심한 상황이다.
- 정부의 민간 항공사에 대한 일일 항공편 제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는 그들의 서비스 비율중 일정 편수를 줄이도록 요구받고 있다. 항공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수요는 변치 않아 4분기 수익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CNNBusiness: Wendy's is closing hundreds of restaurants
Wendy's, 수백개 매장 문을 닫는다

- 웬디스가 경영 개선 차원에서 미국의 수백개 매장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 이 회사의 CEO는 미국 소재 6천개 매장중에 한자리 중간 비율 정도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략 2백개에서 3백50개 내외로 추정된다.
- 이들 매장은 지역적으로 비즈니스 성과가 없는 곳들이다. 관련 매장은 올해 문을 닫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그는 이를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맹 업주들이 기존의 매장에 자본과 자원을 더 투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CNNBusiness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